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1)(4/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4 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함, 2 절

골 2:1-3 -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 5:18-19 -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 주님을 맛보고 알게 된 사람이 무엇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주를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올바르게 알고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고전 1:26; 롬 8:5; 요일 2:16).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지극히 헛된 것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멸시하고 육신을 죽이고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나아오고, 육신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영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들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주가 주는 달콤함과 피조물이 주는 달콤함, 영원이 주는 달콤함과 시간이 주는 달콤함, 본래의 참된 빛이 주는 달콤함과 피조되고 반사된 빛이 주는 달콤함은 서로 같을 수가 없고,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보화이다. 골 2:1-3 -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 보화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다윗은 주님을 모심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했다. 시 16:11 -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요한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면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했다. 요일 1:3-4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님은 칠십 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간증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눅 10:21 -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의 역사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달콤함으로 표현했는데, 미국 제 1 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느낌을 달콤함으로 묘사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한 그 ‘달콤함’은 세상은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 마음의 평안, 영혼의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찾는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 갈망하게 된다. 은혜의 속성 중의 하나는 갈망이다. 시 63:1-4 -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참된 보화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그 달콤함은 정욕을 만족시킴으로서의 달콤함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적인 달콤함, 감사,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대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살전 5:16-18).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기쁨, 기도, 감사는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많고 문제가 많으며 심지어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이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로서 이교도 지역에서 다양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로써 실천할 수 있는 항상 기쁨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을 권고한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고달픔도 잊고 씻을 수 있으며,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과 동행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으로 인하여 삶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통로요 수단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이들은 삶을 힘겨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은총과 복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전 5:18-19 -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달콤함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삶의 애환과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파키스탄 최아브라함, 이란(터키) 태일, 인도네시아 하영광,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키르키즈스탄 홍패밀리)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이 땅에 세우신 선지동산(신학교)들을 주의 영으로 붙잡으시사 미래 교회를 위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